

KORDI ISSUE PAPER



2021-4

발행일 2021.12.24.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가구구조의 변화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 방향

김 가 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kwkim@kordi.or.kr)

요약

-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가구구성 및 관련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17~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유형 추이 분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약 78만 명) 자료를 활용한 가구유형 및 관련 특성 분석을 실시함
-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 노인 1인가구 진입 초기 6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 연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 기반 조성을 제안함

1.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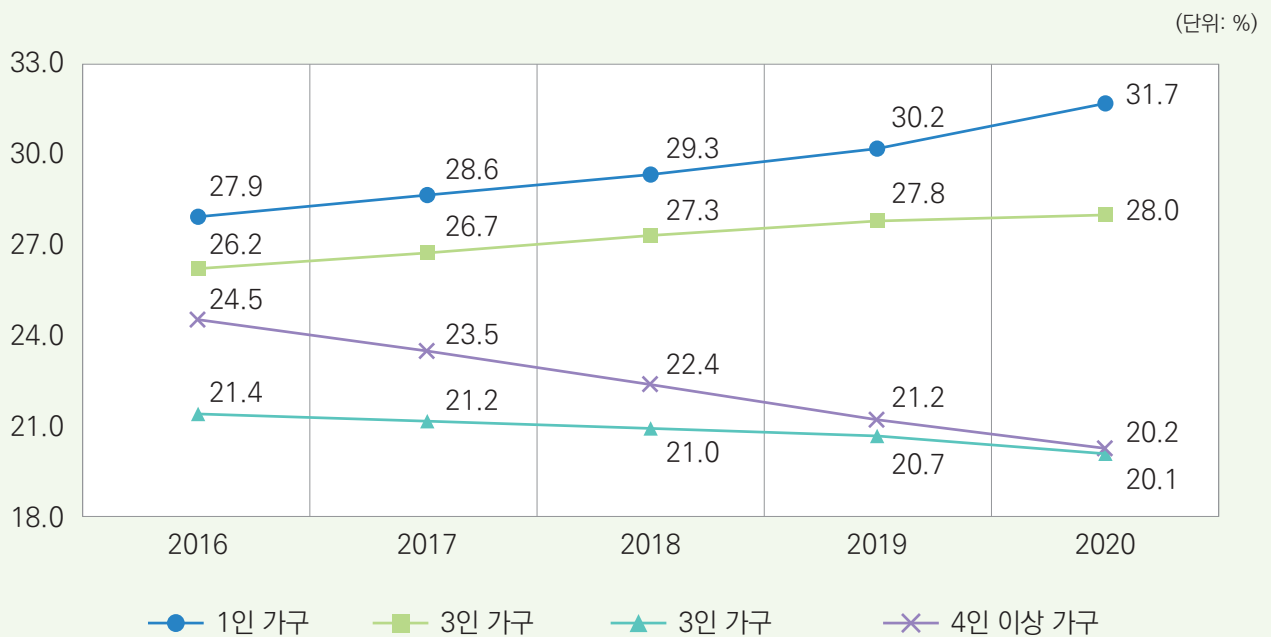
▷ 가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가구는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함. 우리나라는 가구원 수의 감소,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질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옴

-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1인가구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고령층 1인가구는 사별 등 비자발적 동기로 형성된 경우가 많으며,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건강 등 돌봄, 사회적 관계 등 취약한 것으로 보고됨
- 이에 본 고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가구구성 및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 참여노인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현황¹⁾

- ▷ 1인가구는 '20년 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형태는 '05년 4인, '10년 2인, '15년 1인가구로 변화함. '20년 1인가구는 31.7%(664.3만 가구)이며, 2047년 37.3%(832만 가구)로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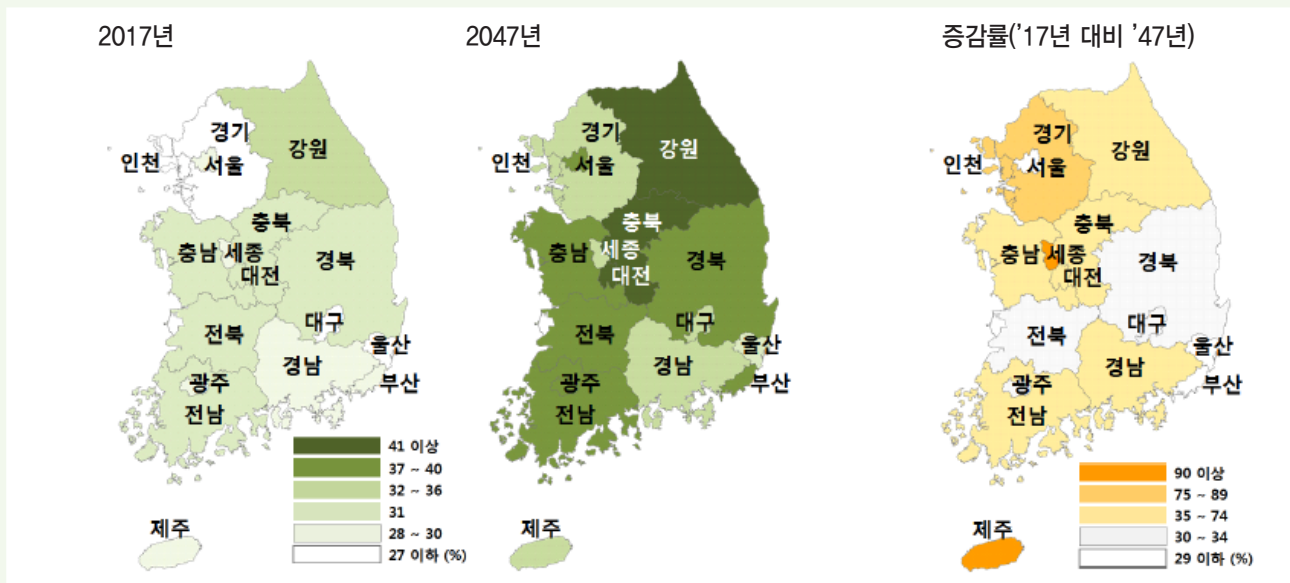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가구원 수별 가구 추이(2016~2020년)

원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202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그림을 작성함.

1)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1)」.(2020.6.25.),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1.12.8.),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2019.12.16.),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향후 30년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며, 2047년 강원(41.9%), 충북(41.8%), 대전(41.7%) 등의 순으로 7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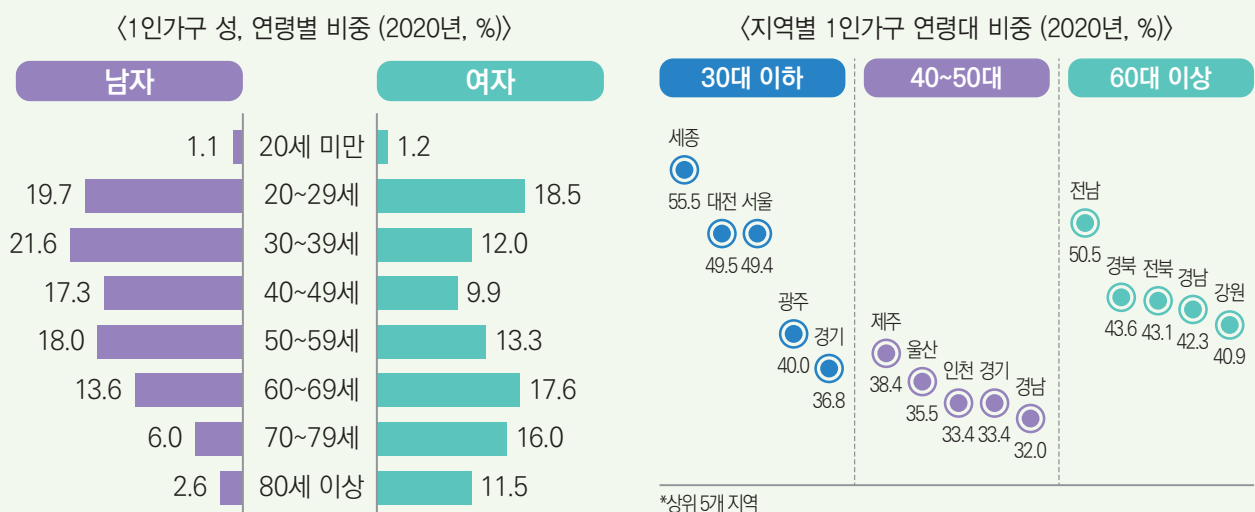


[그림 2]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및 증감률(2017~2047년)

자료: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9.12.16., 통계청.

▷ 1인가구의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등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기준 1인가구 연령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음. 그러나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가구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연령대별 시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1인가구 비율은 전남지역이 5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북(43.6%), 전북(43.1%), 경남(42.3%), 강원(40.9%) 등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연소득은 2019년 기준 2,162만 원이며, 이는 전체 가구(5,924만 원)의 36.5% 수준임



[그림 3] 우리나라 1인가구의 주요 현황

자료: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1.12.8., 통계청.

▷ 1인가구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하여 연령대별 다양한 증가 요인이 존재함

- 청년층은 타 지역으로 진학·취업을 통한 분리·독립,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증가
- 중장년은 비혼주의,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을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 요인 혼재
- 노년층은 고령화·기대여명 차이로 인한 사별로 가족 구성원이 탈락하면서 1인가구가 형성되는 것이 주요 요인임

▷ 1인가구는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생활 전반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

-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가구 평균 수준에 비해 '20년 기준 적정수면 6.3%p, 아침 식사 5.3%p, 정기 건강검진 4.3%p, 규칙적 운동 1.7%p 더 낮음
- 1인가구의 유병률은 '20년 38.9%로 전체 인구(25.0%)보다 13.9%p 높음. 또한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도 1인가구(11.3일)가 전체 인구(9.9일)보다 1.4일 더 많음
-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18년 기준 95만 5천 원으로 18세 이상 전체 의료비(68만 5천 원) 대비 약 1.4배 수준임. 이들 전체 인구(18세 이상)와 1인 가구의 연간 의료비 격차는 27만 원으로 '1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년 22.8%로 전체 만족도(27.0%)보다 4.2%p 낮음. 최근 10년간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이 있음. 불만족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48.8%), 건강·체력 부족(18.5%) 등의 순임
- '20년 1인가구가 바라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50.1%), 돌봄서비스(13.4%), 건강증진 지원(9.7%) 등의 순임.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높게 희망함

▷ 노인 1인가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1인가구는 '00년 54.4만 명, '10년 99.1만 명, '20년 158.9만 명이며, '30년 258.6만, '40년 362.3만 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전망임
- 이처럼 노인 1인가구의 절대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시사함
- 특히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타 가구 유형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적 고립 및 단절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3. 1인가구 대응 정책 현황²⁾

▷ 우리나라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범부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20.6.25.)을 발표하였음.

- 취약 1인가구의 빈곤 및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를 제시함

〈표 1〉 1인가구 대응 5대 분야 정책 과제

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	
1. 소득, 돌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	▶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2. 주거	▶ 청년고령층 맞춤형 지원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후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3. 안전	▶ 사전 예방 체계 확충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방체계 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 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 즉각 대응시스템 구축 - 신속·민감대응시스템 전국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4. 사회적 관계망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5. 소비	▶ 간편식품산업 - 시장 활성화 기반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 외식업 - 1인가구 매뉴개발 등 컨설팅 지원 ▶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산업 - 디자인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유도	▶ 온라인 판매 산업 - 중소·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강화 ▶ 로봇 산업 - 돌봄로봇 등 관련 상품 공급 활성화

▷ 해외 주요국은 1인가구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보다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임

〈표 2〉 주요국 1인가구 규모 및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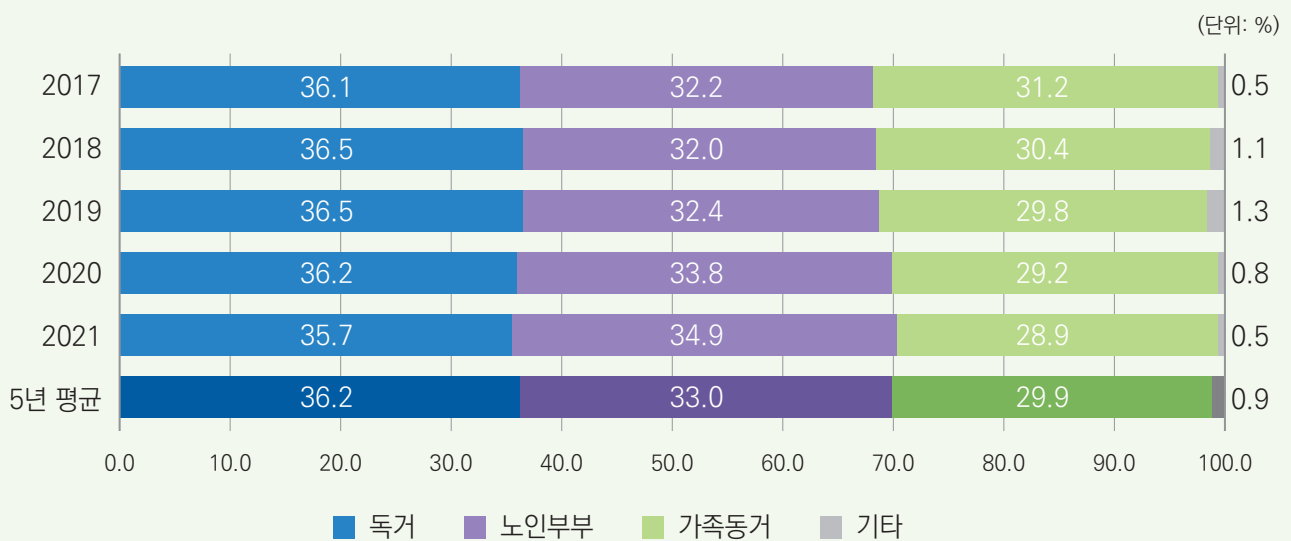
구분	1인가구 규모	주요 정책
미국	28.4%(‘19년)	▶ 1인가구 관련 미 정부의 별도 정책은 없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
영국	29.0%(‘19년)	▶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지 않음 ▶ 기존 사회보장 및 안전망제도(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보호주택 등)를 통해 보호 ▶ 최근 “외로움(loneliness) 대응전략” 마련하여 추진 - 이혼, 사별, 실직 등에 대응하여 2천만 파운드 규모 기금조성,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성 제고 정책 마련
일본	27.7%(‘18년)	▶ 1인가구에 특화된 종합대책은 없음 ▶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고령화 대책 추진
프랑스	36.0%(‘16년)	▶ 1인가구에 한정된 정책은 찾기 어려우나, 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은 존재 ▶ 미망인 수당, 활동연대수당, 주택보조수당, 노인연대수당, 사회적 지원수당, 청년 연대수당 등 지원
독일	41.9%(‘18년)	▶ 1인가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은 찾기 어려움 ▶ 다만, 1인가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 복지, 의료 등 취약계층 정책으로 지원

2)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2020.6.25.)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유형 분포³⁾

▷ 최근 5년 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가구유형은 독거(노인 1인가구)가 가장 많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독거가구 비중은 '17년 36.1%, '18년 36.5%, '19년 36.5%, '20년 36.2%, '21년 35.7%로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5년 평균 가구유형은 독거 36.2%, 노인 부부 33.0%, 가족동거 29.9% 등의 순임
- 이를 우리나라 전체 60세 이상 1인가구 규모와 비교하면, '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1인가구 비중(36.2%)은 전체(33.7%)보다 약 2.5%p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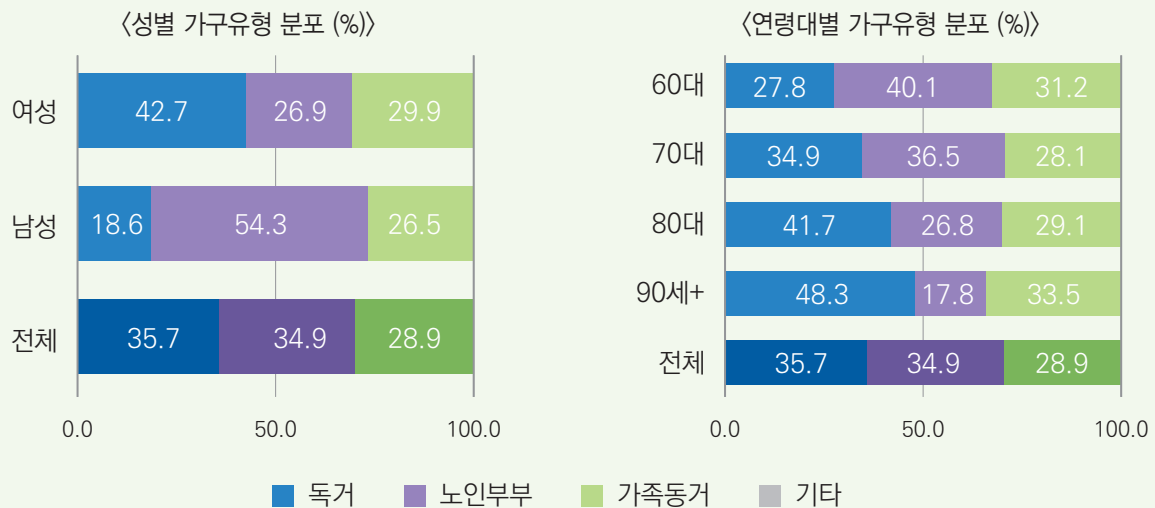
[그림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 특성(2017~2021년)

자료: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그림을 작성함.

▷ '21년 10월 기준 추출한 777,434명의 자료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세부 특성에 따라 가구유형 분포를 살펴봄. 그 결과, 성, 연령대, 참여사업,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가구유형 분포의 특징이 드러남

- (성별) 여성 참여노인은 독거(42.7%), 가족동거(29.9%), 노인부부(26.9%) 등의 순으로 가구유형이 분포함. 반면에 남성 참여노인은 노인부부(54.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동거(26.5%), 독거(18.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 60대에서 90세 이상 집단으로 갈수록 독거가구의 비중이 높음. 이는 주로 고령화와 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를 형성하는 노년기 특성을 보여주는 것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60대, 70대는 노인부부 가구(40.1%, 36.5%)가 가장 많고, 80대 및 90세 이상은 독거 가구(41.7%, 48.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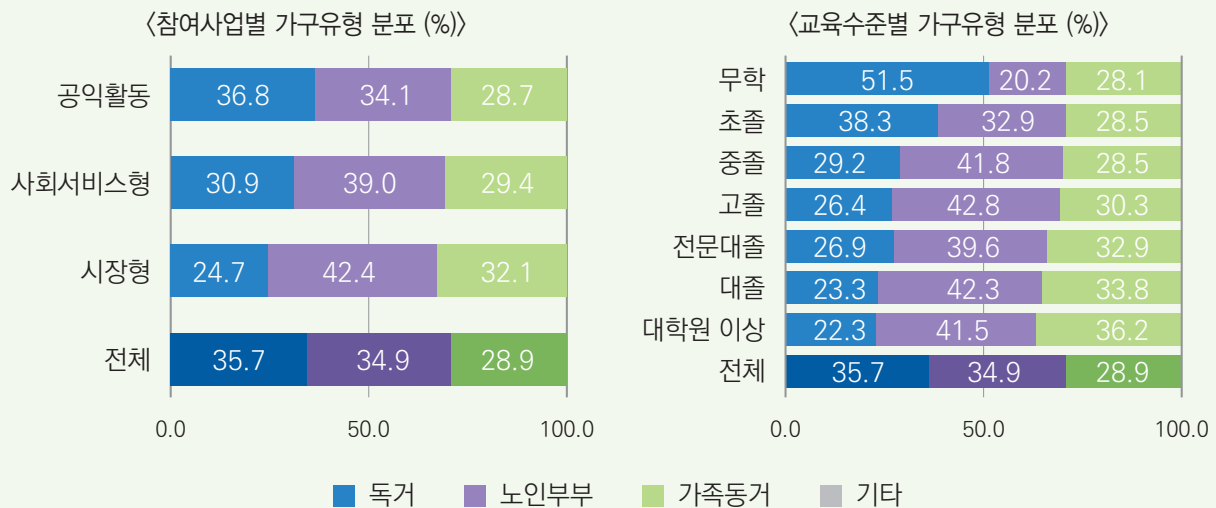
3) 본 내용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각 연도('17~'20년 12월, '21년 10월 기준 추출)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한 것임.



[그림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성, 연령대별 가구유형 분포(2021년)

자료: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그림을 작성함.

- (참여사업별) 공익활동 참여노인은 독거가구가 36.8%로 가장 많음.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내 독거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부부 가구유형이 각각 39.0%, 42.4%로 가장 많았음
- (교육수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교육수준별 가구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고학력에서 저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해당 내 독거가구 비중이 더 높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냄. 독거가구는 무학 집단에서 51.5%에 달했으며, 반대로 대학원 이상 집단은 22.3%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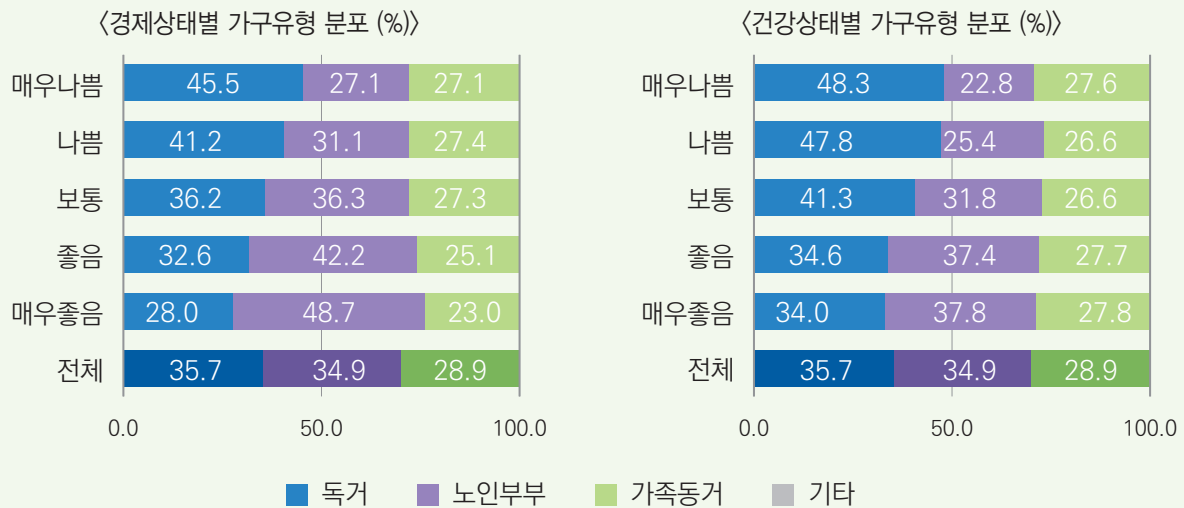


[그림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사업별, 교육수준별 가구유형 분포(2021년)

자료: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그림을 작성함.

- (경제상태별) 자신의 경제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은 독거가구의 비중이 높고 노인부부 비중이 낮은 일관된 결과를 보임.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나쁨' 집단은 독거가구 45.5%, 노인부부 27.1%로 분포하며, '매우 좋음' 집단은 독거가구 28.0%, 노인부부 48.7%로 반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건강상태별) 건강상태별 가구유형 또한 경제상태별 가구유형과 유사한 분포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나쁨'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독거가구가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그림 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별 가구유형 분포(2021년)

자료: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그림을 작성함.

5.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유형별 특성 분석⁴⁾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 유형별(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한 F검정을 실시함.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사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성) 여성은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유형에서 각각 84.9%, 54.8%, 73.4%를 나타냈으며, 가구유형에 따른 성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 < .001$)
 - (연령)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각각 76.69세, 75.13세, 75.78세로, 가구유형에 따라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p < .001$). 사후 검정 결과, 독거, 가족동거, 노인부부 순으로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음
 - (교육수준) 무학 비중은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각각에서 23.2%, 9.6%, 15.9%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유형에 따른 교육수준 분포 차이가 나타남($p < .001$)
 - (사업 유형) 공익활동은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의 가구유형에서 각각 90.0%, 85.4%, 86.7%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구유형에 따른 사업 유형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음($p < .001$)

4) 본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무시스템 Database」, 각 연도('21년 10월 기준 추출) 원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한 것임.

- (주관적 경제상태) 참여자들은 5점 기준 평균 2.54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보였으며,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각각 평균 2.45점, 2.66점, 2.53점을 나타냄. 가구유형에 따른 주관적 경제상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1$), 사후 검정 결과 노인부부, 가족동거, 독거 순으로 주관적 경제상태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건강상태) 5점 기준 평균 3.81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었고, 독거, 노인부부, 가족동거 각각 3.74점, 3.87점, 3.83점을 보임. 가구유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사후 검정 결과 경제상태와 마찬가지로 노인부부, 가족동거, 독거 순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높았음

〈표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유형별 변인들의 특성

(n=773,219, 단위: 명, %, 점)

항목		전체(명)	가구 유형(%) ¹⁾			χ^2 / F	Scheffe ¹
			독거 ^a	노인부부 ^b	가족동거 ^c		
성	여성	548,783	84.9	54.8	73.4	61182.201 ***	-
	남성	224,436	15.1	45.2	26.6		
연령 (세(SD))		75.88(5.73)	76.69(5.65)	75.13(5.52)	75.78(5.93)	5224.264 ***	a>c>b
사업 유형	공익활동	676,014	90.0	85.4	86.7	3113.626 ***	-
	사회서비스형	58,847	6.6	8.5	7.8		
	시장형 사업단	38,358	3.4	6.0	5.5		
교육 수준 ²⁾	무학	81,484	23.2	9.6	15.9	15087.437 ***	-
	초졸, 중졸	320,465	62.9	66.5	63.4		
	고졸 이상	96,475	13.9	23.9	20.8		
주관적 경제상태 ³⁾ (점(SD))		2.54(0.90)	2.45(0.89)	2.66(0.90)	2.53(0.88)	549.368 ***	b>c>a
주관적 건강상태 ⁴⁾ (점(SD))		3.81(0.79)	3.74(0.80)	3.87(0.77)	3.83(0.78)	360.195 ***	b>c>a
전체		773,219	100.0	100.0	100.0		

원자료: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21년 10월 기준.

주 1) 가구 유형: 기타 및 결측값 4,215개를 제외하고, 총 773,219개 자료로 분석

2) 교육수준: 유효값 498,424개 자료로 분석

3) 주관적 건강상태: 유효값 103,299개 자료로 분석

4) 주관적 건강상태: 유효값 137,251개 자료로 분석

5) * $p<.05$, ** $p<.01$, *** $p<.001$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 유형 및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 성, 연령, 교육수준, 사업유형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무학인 경우, 공익활동인 경우, '독거가구'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
- 반면,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독거가구'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

〈표 4〉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성 ^a	1						
2. 연령	-.110 **	1					
3. 교육수준 ^b	.194 **	.232 **	1				
4. 사업 유형 ^c	-.027 **	.329 **	.122 **	1			
5. 주관적 경제상태	-.043 **	-.102 **	-.071 **	-.084 **	1		
6. 주관적 건강상태	-.086 **	-.121 **	-.132 **	-.083 **	.024 **	1	
7. 가구 유형 ^d	.228 **	.107 **	.140 **	.058 **	-.085 **	-.068 **	1

원자료: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21년 10월 기준.

주 1) 더미변수 기준범주: a여성, b무학, c공익활동, d독거

2) *p<.05, **p<.01, ***p<.001

6. 결론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방향

- ▷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중에서도, 특히 1인가구 노인은 가족 구성원을 통한 신체적 돌봄,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원 등이 어려워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노인 1인가구의 삶의 질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통한 자기돌봄 수준이 높아지므로(김가원, 허준수, 2021), 지역사회 내 1인가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고립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개입할 필요가 있음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구성 및 관련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고도화가 필요함
 - 노인 1인가구의 행복감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1인가구의 행복감 수준은 ‘뒤집어진 U자형’인 래퍼(Laffer) 곡선을 띰(김가원, 황혜신, 2021). 특히 60대 노인 1인가구의 행복감 수준이 낮는데, 이는 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형성된 경우 고연령층에 비해 독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 시기 퇴직의 경험으로 소득 감소 및 사회적 교류 저하 등 생활 전반에 복합적인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구구성 및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특히 노인 1인가구로서 독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전환을 준비하여 향후 노년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맞춤형 정책을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 중심의 사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자료 구축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내 노인 1인가구 집단은 여성, 고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낮은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 고령의 1인가구는 성, 연령의 측면에서, 그리고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전체 노인집단 중에서도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복합적인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잠재 수요층의 현황 및 특성을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료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가원, 황혜신 (2021). 노인 1인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 김가원, 허준수 (2021). 노인 1인가구의 자기돌봄 유형화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2): 159~188.
- 기획재정부 (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2020. 6.25. 보도자료.
- 통계청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9.12.16., 보도자료.
- 통계청 (2021).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1.12.08. 보도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일로 106

www.kordi.or.kr